

Vol. 20 No. 953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April 19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미술관, 고려시대 사리 조계종에 기증

15년 만에 사리는 기증, 사리구는 대여, 문화재청 입장변경으로 타겟 보스톤미술관, <반환> 아닌 자발적 기증, 부처님오신날 이전 귀국 기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미술관(MFA)이 세 부처와 14세기 고려시대 선사들의 사리를 대한불교조계종에 기증, 85년만에 한국의 품으로 돌려 보낸다.

보스톤미술관은 4월 16일 조계종과 주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종교 의식을 갖고 불교의 성물인 사리의 기증을 완료했다.

이번에 기증되는 사리는 세계의 유리구와 청동구 그리고 작은 조각들이다. 박물관은 14세기 고려왕조시대의 금빛 사리구에 담겨 있는 사리들을 1939년 달린 야마나카엔컴페이오브보스톤으로 구입했다. 이 큰 사리구가 '은제도금 라마탑형사리구' 다.

이 큰 사리구 담긴 작은 사리함들은 라마탑 모양으로 사리를 안에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자로 석가모니 진신사리, 카사파 부처 그리고 다람카라 부처뿐만 아니라 나옹(1320-1376), 지공 선사(1363)의 사리로 새겨져 있다.

매튜 타이텔바움 보스톤 박물관장은 "조계종단, 대한민국 문화재청,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일하게 돼서 영광이었다. 종교적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는 사리들을 기증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성명서 통해 밝혔다.

조계종은 보스톤미술관에 기증에 대한 감사패를 선물했다. 사리는 귀국 다음 날인 4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이 ▶6면으로 계속



보스톤 미술관은 16일 세 부처와 고려시대 선사들의 사리(사진 가운데 박스)를 한국의 조계종에 돌려보낸다. 이 사리들을 담고 있는 큰 사리구(사진 오른쪽)와 라마탑 모양의 작은 사리함은 보스톤 미술관이 한국에 대여하며 추후 이를 한국실에 전시할 계획이다.(사진=MFA 제공)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칭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특별한 보상. 전문적인 권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턴트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스톤 마라톤 한국국적 193명 참가 사상 최대

213명 등록, 189명 완주 팬데믹 터널 완전히 지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팬데믹 이후 세 번째로 열린 128회 2024년 보스톤 마라톤에는 사상 최대인 193명의 한국인 선수들이 참가하여 보스톤 마라톤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2023년 대회에는 팬데믹 여파로 41명만 참가했으나 올해는 213명이 등록해 그중 193명이 대회에 참가하고 189명이 완주했다. 2021년 팬데믹 당시 한국 국적 선수가 단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

다.

올해 대회는 3일 전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했지만, 보스톤은 마라톤 당일 화창하게 개였고 화씨 60도 중반의 쾌적한 날씨가 이어졌다. 총 26,596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마라톤을 뛰었다.

한국 국적 선수 중 최고 기록은 춘천에 거주하는 김경환(39) 선수가 2시간 49분 10초였다. 두 번째는 서울에 거주하는 서영 선수(47)가 2시간 51분 19초, 세 번째는 영등포구에 거

주하는 홍철기(44) 선수가 2시간 53분 43초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 국적의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들도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했다. 대표적으로 전 보스톤 시 비서실장인 댄고는 올해도 3시간 19분 18초에 마라톤을 완주했다.

128회 올해 보스톤 마라톤 대회 남자부에서는 이디오피아의 시세이레마 선수가 2시간 6분 17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으며, 여자부에서는 헬렌 오베리가 2시간 22분 37초의 기록으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하버드서 탈북민들 영어말하기 대회, 생생한 북한 경험 전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북한인권단체 프리덤스피커즈 인터내셔널(FSI)은 13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탈북민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탈북민들은 이날 대회에서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 중국내 여성 인권, 탈북민으로서 정체성, 자유의 중요성까지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다양한 실상을 발표했다.

대회 우승자는 탈북 여성의 생활과 모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명희 씨에게 돌아갔다. 17세에 탈북한 김씨는 인신매매 등 중국에서 북한 여성이 겪는 인권침해 경험을 발표했다.

영어말하기대회 이후 미국에서 탈북민 인플루언서, 작가, 유튜

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연미씨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에게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할아버지가 북한 출신이라고 밝힌 하버드대 3학년 앤드류는 탈북민들을 통해 현재 북한의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 케이시 라티그와 이은구씨가 공동으로 시작한 FSI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영어 말하기대회, 영문출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두 차례 한국에서 영어 말하기대회를 열어왔으며 미국에서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유람 의료서비스 를 이용해보세요!

◆ 유람건강검진 ◆

시선 장비, 컬러도, 결진방독, 서이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 상암·매곡·갈매천역·서해안고속도로지점 및 한양대 드래프팅센터

☑ 유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1. 이학적검사(신체측정, 비만도, 시력, 안압, 흉담)	7. 목지상검사
2. 동맥경사(순환성혈액검사)	8. 복부/과거사자재청부한, 후방독수촬영
3.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검사 70여가지)	9. 소변검사(사수면 위생검사)
4. 암표지자검사	10. 흉부초음파(정맥사건상, 유방, 췌장, 췌부경계)
5. 심폐기능검사(호흡기-RAY, EKG, 노박성폐동맥)	11. 분진 및 건조의 상담
6. 오심사	

유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5만원

·가진방: [1] 동맥경사, 신장초음파, 골밀도, 비만도검사
·가진방: [2] 심장초음파, 유방초음파, 유방촬영, 유방MRI

유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게 65만원

·가진방: 당일검진 + 수면검사(수면) + 식욕(식단)

유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게 120만원

·가진방: 혈액검사 + 심폐기능검사 + 심전도

유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게 240만원

·가진방: 심폐기능검사, 유방초음파, 유방촬영, 유방MRI, 심전도, 식욕(식단), 영양(식단), 체중(비만도) 검사

유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7일간 진행(오전 검사 포함) 437만원

·가진방: VIP종합검진 + PET-CT(진단영상촬영), 유방촬영, 유방MRI, 심전도, 식욕(식단), 영양(식단), 체중(비만도) 검사

유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급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육서역)) H+원지병원(신원역)
서울무민병원(가양역) 세란병원(북문역)
연신도병원(선부역)

※ 유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 검진에 참여해 건강한 형제 및 가족을 사수하십시오.

617.949.1766

김수남 유람의료서비스대표

주소: 210-3459-4040(D: Inusikorea)
이메일: busun@yuram.or.kr
홈페이지: www.yuram.or.kr



COMPASS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크고 작은 배터리 화재, 매사추세츠주서 6개월간 50건

리튬이온 배터리 전자제품 폭증으로 화재 많아 배터리 화재는 진압 쉽지 않아 사전에 주의 필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소방서비스 부는 지난 6개월간 50건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 평균 배터리 화재의 2배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주 화재 보고시스템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9.4건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보고됐으나 지난해 10월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의 요인이 된 화재의 기본정보를 화재 조사관들이 수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채택한 후 50건이나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주 소방부 장관 존 데바인은 성명서를 통해 “경험적으로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존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화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 6개월간에 조사관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난해에 발생했던 화재보다 더 많은 배터리 화재를 알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화재의 증가는 더 많은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전자 장치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거나 다른 요인이 있거나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소방 관계자는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지난 6개월간 38개 커뮤니티에서 발생했다.

이 배터리는 전자담배, 아이폰 등 작은 기기에서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기차 등 대형까지 다양한 기기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배터리는 과다하게 충전되거나 과열되는 경우 폭발하며 유독가스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소방부는 50건의 화재 중 9건이 스쿠터, e-바이크, 호버보드 등에서 발생했으며 8건은 랩탑, 다른 8건은 셀폰, 태블릿 또는 작은 장치들에서 발생했다. 또한 배터리 충전 과위험에서도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가 발생한 장치의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시 충전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이나 기존의 소화전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덜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전 주의가 절실하다고 소방장관은 강조했다. 모든 층에 화재 연기 알람이 설치돼야 하며 각 장치의 원래 배터리를 사용



하며 충전시 충전기를 다른 기기 충전과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했다. 배터리 충전시에는 익스텐션 코드보다는 벽 아웃렛에서 직접 충전하고 완전이 충전된 경우 플러그를 빼 놓는다. 스쿠터와 이바이크는 가능한 밖에서 보관한다.

8월 웨어햄 단독주택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관들은 1만1천갤런의 물을 3시간동안 쏟아붓고 완전히 소등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진압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바로 재점화돼 계속 물을 뿌려야만 했다.

소방관들은 배터리 소화시 특별히 디자인

된 노즐을 가진 호스를 사용해 배터리 전체에 물을 뿌리고 있다. 이처럼 소화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사람들은 어디서 전기차를 충전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만약 차가 어떤 사람의 집 밑에 주차되어 있거나 차고에 주차되어 있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상황일 수 있다” 고 관계자는 경고했다.

2023년 4월 메드포드에서는 4단계의 화재로 4명이 집을 잃었다. 이 화재는 리튬이온 스쿠터로 인한 화재였다. 이후 2개월 동안 뉴베드포드 아파트에서 배터리 화재로 6명이 집을 잃었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PR. 19th - APR. 25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GNITE YOUR TASTE BUDS WITH BULDAK QUESADILLA
 Cook up your very own Buldak Quesadilla, featuring chicken, cheese, and the iconic Buldak sauce! Are you up for the challenge?
 매콤한 불닭과 부드러운 치즈의 조화로 입안을 즐겁게 해주는 불닭 퀘사디아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and Pear 샌드 배 LB \$2.9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2.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폴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탈포 망고 BOX \$14.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Flank Steak 육개장용 생소 앞치마 양지 LB \$9.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1.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7.99	DYNASTY Frozen Lamb Skewers 다이너스티 양꼬치 10.58/PKG \$13.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Chilean Sea 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19.99	TONGTONGBAY Frozen Oyster 통통배 굴 PRODUCT OF KOREA 8 OZ/PKG \$3.49
TONGTONGBAY Premium Head-on Shrimp 통통배 프리미엄 머리새우 30-40'S/LB \$3.99	TONGTONGBAY Frozen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PKG \$4.99
TONGTONGBAY Frozen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바지락살 200-300'S/1 LB/PKG \$4.99	Fresh Catfish 메기 LB \$1.99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1.99	KWANGCHEON NONGHYUP Roasted Seaweed with Green Tea 광천농협 녹차 도시락김 0.14 OZ X 24 EA/BOX \$8.99
HAIO Cold Noodles 해오름 평양/함흥/동치미 물냉면 \$4.99	YESHU Coconut Juice 예슈예즈 코코넛 주스 8.2 FL OZ X 6 EA/PKG \$5.99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2.99	NONGSHIM Bowl Noodle Soup 농심 육개장/김치 사발면 HOT & SPICY/KIMCHI 3.03 OZ X 12 EA/BOX \$14.99	SAMYANG Samyang Ramen 삼양 삼양라면 4.23 OZ X 20 EA/BOX \$17.99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 \$5.99	HAIO Dumplings 해오름 만두 KIMCHI/VEGETABLE 2.65 LB \$4.99
DAERIMSEON Squid & Seafood Patty 대림선 오징어/등복 해물팽플러스 (1+1) 11.28 OZ X 2 EA/SET \$4.99	HAIOREUM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KTOWN Sesame & Coconut Cracker K TOWN 고소애 FOR 2\$5 11.29 OZ	KTOWN Sweet Melon Cream Crackers K TOWN 메로나 FOR 2\$5 11.29 OZ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4.23 OZ FOR 2\$6
HAITAI Bravo Ice Cream Cone 해태 브라보콘 VANILLA/MILK \$8.99 5.07-5.41 X 5 EA/PKG	DR. JUNG'S FOOD Vegemil Soy Milk 정식품 베지밀 두유 A (PLAIN)/B (SWEET) 6.42 FL OZ X 24 EA/PKG \$13.99	NASSAU Feather Shuttlecock 나소 천연깃털 셔틀콕 3 PCS/PKG \$3.99	NASSAU M Power Badminton Racket 나소 M파워 컬러믹스 배드민턴 라켓 2 PCS/RED & BLUE \$9.99	DUFT & DOFT Stockholm Signature Perfume Hand Cream 더프트앤도프트 시그니처 퍼퓸 핸드크림 ALL VARIETIES \$3.99 50 mL EA
		SKINFOOD Black Sugar Mask Wash Off 스킨푸드 블랙슈가 마스크 워시오프 스크럽/퍼펙트 에센셜 스크럽 \$6.99 \$11.99 3.52 OZ EA		

UNTIL APR. 25, 2024

JINGA
홍어회무침

SPICY SKATE WITH VEGETABLES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8.99~~
\$4.99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보스톤미술관, 고려시대 사리 조계종에 기증

▶▶1면에 이어서

전을 알리는 간단한 종교의례를 거친다. 이후 회암사에 안치되며 5월 15일 석탄일 이후 공개 전시된다.

한국 불교계는 지공 선사가 창건했다는 양주 회암사를 원 소장처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 말 나옹 선사 입적 이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으로 유출된 경로는 도굴 후 고물상에 넘겨진 것으로 일부 주장되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리들의 반환은 지난 2008년 11월 문화재 제자리찾기 당시 사무총장 해문 스님(봉선사)이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에서 '회암사 유물반환추진위'를 결성하고 2009년 1월 미술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 신문 뉴스로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미술관측은 사리들의 보관함인 사리구를 제외한 사리들을 반환할 수 있다면서 한국정부의 한국 문화부 장관이나 문화재청장이 사리만의 반환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리구없이 사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해 지난해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그 이후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김건희 여사가 미술관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물꼬

가 트였다. 문화재청이 사리 및 사리구의 일괄 반환에서 사리의 우선 반환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국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은 사리구의 임시 대여가 이뤄지면 국내 반입 기간 동안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청장은 "약 100년 만에 국내에 들어와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스톤미술관과의 상호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톤미술관 케런 프레스코나 대변인은 "(15년간 교착됐던 협상이) 보스톤미술관, 조계종 그리고 문화재청 모두가 합의해 기증하게 됐다. 16일 사리기증 예식은 MFA에 극히 의미있는 행사였으며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사리들이 돌아가게 돼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 해공 스님은 "조계종과 문화재청, 주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무엇보다 종교적 정서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준 MFA에 아낌없는 감사를 표한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감사를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MFA Boston

Get Tickets Join Today

Visit Exhibitions Programs Collections Membership Give Shop

Today's Hours: Closed

Museum of Fine Arts, Boston, Donates Relics to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BOSTON (April 16, 2024)—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MFA), has donated to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 group of relics, or sarira, which are the symbolic remains of

Contact Karen Francisco 617-369-3443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lshou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rimso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폴리진
978.454.2043
lshoung@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크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유
617.780.7833
peter.y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헤
978.866.3248
jhe@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주
401.535.3387
ye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638.5787
saryu@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강수준
617.638.6973
kangsojun@bostonpremierrealty.com



파사 송
213.563.0997
parksu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헤
413.507.1402
mikehe@bostonpremierrealty.com



선재해
617.913.3588
sunjaeh@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677.9387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송
781.800.3412
yiyong@bostonpremierrealty.com



박국숙
781.898.1214
parkgook@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510.1182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곤
617.643.8723
ego@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04.611.0182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617.274.5610
to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Mian Yu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8
xian@bostonpremierrealty.com



Li Jang
248.448.0117
lij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638.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23.103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반문희 박
291.448.8589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재이그 김
781.956.0409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0434
arab@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bostonpremierrealty.com





아직 3월인데...그레이트 보스톤 집값 90만달러

매사추세츠 집값 여전히 오르지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집값이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사추세츠부동산중개인협회(이하 MAR)에 따르면, 그레이트보스톤 지역 단독 가구 주택의 중위가격이 지난해 3월 대비 9% 상승한 \$900,000를 기록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다. 지난해 최고가였던 7월의 \$910,000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올해 7월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레이트 보스톤의 콘도 중간가격 역시 9% 상승한 \$740,000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거래량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3월 단독주택 거래량은 606채로, 지난해 630채 대비 3% 감소하며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 수도 지난해 1,303채에 비해 20% 감소한 1,002채에 불과하다.

에이미 월릭 MAR 회장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약 4개월 분량의 매물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약 1.1개월 분량의 물량밖에 없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연준의 사상 최고속도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매사추세츠 주택시장은 거의 유사한 현상에 머물고 있다. 때론 금리 변화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페니메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88%였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현재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저금리의 모기지를 포기하고 집을 파는 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힘든 시장이 되고 있다. 집값 상승과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월 모기지 상환금이 과도하게 높아진 탓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밝은 상태다. 당초 6월 금리인하설이 7월로 미뤄지고 있지만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활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주택 건설을 부양하기 위한 41억 달러 규모의 채권 법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900스퀘어피트 이하의 ADU(주거용부속건물, Accessory Dwelling Units)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타운과 시가 ADU 건축 권한을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물량 증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10만달러 소득,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은 옛말...이젠 적어

미국인들 아메리칸 드림 위해 모자란 소득 빛으로 채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집을 소유하고 결혼해 아이들을 출산하며 레저 생활을 즐기면서도 은퇴를 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생활의 여유, 즉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6자리 수 연봉인 \$100,000는 과거 아메리칸 드림의 기준이었다. 이 수치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였다.

2023년 CNBC가 서베이몽키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2%의 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연봉 \$100,00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6%는 연봉 \$100,000에서 149,00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 엘리 스고울드 박사는 "지난 50년 동안 임금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스고울드 박사는 "많은 가정이 아메리칸 드림인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50-30-20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소득의 50%는 필수 지출, 30%는 여가 및 임의 소비, 나머지 20%는 저축에 할당한다.

고뱅크레이츠(GOBankingRates)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4인 가족이 각 주에서 집과 차,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산출된 필수 지출 추정치의 2배를 늘려 최종 비용을 산정했다.

고뱅크레이츠의 분석을 적용한 결과, 50개 주 모두에서 연 소득 \$100,000 이상이 필요했으며, 38개 주에서는 \$140,00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인들이 빚을 내서 필요한 소득을 대치한 것으로 분석했다. 학자금 대출은 2023년 1분기에 사상 최대인 1조 7천 700억 달러(\$1.77 trillion)였고, 크레딧카드 빚은 2023년 4분기에 1조 1천 300억 달러(\$1.13 trillion)로 치솟았다.

로마노프 박사는 "현재 6자리숫자 이상 즉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들도 여전히 매달 버는 족족 소비하는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재정 자유의 상징이었던 \$100,000가 이제는 매달 허덕이며 살아가게 만들도록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마노프 박사는 "현재 6자리수 이상, 즉 \$100,000 이상의 소득을 벌어도 매달 버는 대로 소비하는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재정적 자유의 상징이었던 \$100,000가 이제는 매달 허덕이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4/18 - 5/2,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Pulmuone

Cold Noodles with Broth & with Spicy Sauce

풀무원 평양물냉면 + 비빔냉면 46.2 OZ

4 PACKS FAMILY PACK



\$6.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집값 오르는데 왜 벨몬트, 브루클라인 등 지역은 떨어질까?

단독 주택 중간 판매가격 링컨, 벨몬트선 오히려 떨어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인근의 교외 부촌의 주택가격이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 사이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부동산관련 자료분석회사인 워렌 그룹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주택가격이 떨어진 보스톤 인근 교외의 부촌은 벨몬트(-7.28%), 브루클라인(-6.29%), 힝햄(-5.14%)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택시장의 부침에 상관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타운들이었다. 특히 링컨의 경우 두자리 숫자로 가격이 하락했다.

보스톤글로벌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모기지 금리가 만들어 내는 기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구매자와 매도자 모두 움츠러들게 되며 이로 인해 보스톤 인근의 가장 비싼 주택들은 매매하기가 어려워진다.

케임브리지의 부동산 브로커 세이지 캔코버치는 “이는 모기지 금리의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문제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금리가 높을수록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그레이터보스턴 대부분의 지역에서 치솟았다. 금리가 높아도 첫 주택구입자들은 여전히 집 구매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집가격이 적절하기만 하다면 높은 월 모기지 상환금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부촌의 주택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첫주택구입자들에게 팔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부촌의 주택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넓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모기지 금리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백만 달러의 교외 주택 가격과 높은 모기지 금리가 결합되는 경우 심지어 부유한 구매자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고급주택들은 거의 팔리지 않게 되

고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그레이터 보스톤의 주택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해 중간가격은 \$845,000이었다. 올 3월에는 \$900,000로 또 치솟고 있다. 즉 이 지역의 심각한 매물 부족 사태는 매년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촌에서는 이 같은 주택가격 인상 경향이 역전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특히 링컨의 역전현상은 두드러진다. 워렌 그룹은 링컨 지역의 주택가격이 지난해 15% 이상 빠진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판매된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1,411,250으로 2022년에 비해 \$200,000가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지역의 주택들이 진짜 저렴해진 것은 아니다. 링컨의 부동산 중개인 테리 펄머터는 주택가격의 하락에 놀라면서 주택 전반의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위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단 42채의 집이 팔렸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링컨은 여전히 고가이며 집 구매가 아주 어려운 곳 중의 하나다. 그러나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매매는 소수만 이뤄지고 있다. 팔리는 집들은 정말 이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거래되고 있어 중간 집값은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펄머터씨의 말이다.

캔코버치는 이 같은 기현상은 모기지 금리가 인하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을 집을 구매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집을 팔고 싶어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빠르게 매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가장 안전한 도시 20곳, 내가 사는 곳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FBI의 범죄기록 통계를 바탕으로 10년째 가장 안전한 도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세이프와이즈가 매사추세츠의 가장 안전한 도시 20곳을 발표했다.

보안제품 평가 플랫폼인 세이프와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서 노스보로, 웨일랜드, 그리고 클린턴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다. 15,699명이 거주하는 노스보로는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1천명당 강력범죄 0.3건, 절도범죄 0.1건을 기록했다.

안전한 도시로 랭크된 모든 타운과 시는 인구 1천명당 강력범죄가 1.1건 이하였다. 이 순위는 FBI가 2023년 10월에 발표한 범죄기록과 2022년 범죄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대 안전한 도시 중 5위에 선정된 임스위치는 인구 1천명당 강력범죄 0.4, 절도범죄 2.5로 지난해에 비해 36계단 올라섰다. 9위 홀리스턴은 강력범죄 0.3, 절도범죄 3.6으로 19계단 상승했고, 10위 렉싱턴은 강력범죄 0.4, 절도범죄 3.1로 12계단 상승했다.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타운은 19위 텍스베리로, 강력범죄 1, 절도범죄 2.0을 기록하며 11계단 미끄러졌다. 15위 웨스트포드는 강력범죄 0.7, 절도범죄 2.8로 9계단 뒤로 밀렸다.

매사추세츠는 인구당 강력범죄

와 절도범죄의 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 내에서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 1천명당 강력범죄율은 3.7건, 절도범죄는 11.3건이었다. 미국 평균은 강력범죄 4.0건, 절도범죄 20.7건이었다.

한편, 인구 25,000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 내 100대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서는 인구 88,000명의 뉴튼이 강력범죄 0.5, 절도범죄 6.6으로 5위에 선정되었다. 다음은 세이프와이즈가 선정한 2024년 20개 안전한 도시 목록이다.

1. Northborough
2. Wayland
3. Clinton
4. Grafton
5. Ipswich
6. Winchester
7. Sharon
8. Scituate
9. Holliston
10. Lexington
11. Medway
12. Sudbury
13. Bedford
14. Pembroke
15. Westford
16. Medfield
17. Norton
18. Milton
19. Duxbury
20. Marshfield

hsb@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보스톤 마라톤 남자부 시세이 레마 우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4년 보스톤마라톤에서 이 디오피아 출신 시세이 레마(33)가 2시간 6분 11초의 기록으로 남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언택이 많은 보스톤 코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레마는 이번 보스톤 마라톤 우승으로 언택 코스에서도 강한 선수로 거듭났다.

시세이 레마는 지난해 12월 비교적 평평한 코스인 발렌시아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48초란 기록을 세우며 우승. 2시간 2분대 벽을 깨뜨린 4번째 마라톤자가 됐다.

레마는 15일 보스톤마라톤 초반 큰리드를 벌리며 나섰다. 그는 뉴턴의 핫 브레이크힐 전까지는 보스톤 마라톤 코스 신기록을 세우는 페이스

였다. 레마는 “페이스 메이커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빠르게 선두로 치고 나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

세계 신기록의 속도로 달려나가던 그는 핫 브레이크힐을 지나는 30킬로 지점에서부터 체력이 저하되며 느려졌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언택(핫 브레이크힐)이 아니라 (보스톤칼리지를 지나는) 내리막길이였다” 고 털어놓았다. 2분 20초나 떨어져 있던 2위 그룹과의 격차는 급격하게 좁아졌다. 특히 케냐 출신인 존 코리어와 에반스 체벳은 급격하게 거리를 좁혀 들었다.

레마는 “내 자신에게 곧 리듬을 찾을 거야 하며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으며 결국 이길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번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노련한 에반스 체벳의 도전에도 레마는 결국 페이스를 내주지 않고 완주해 우승을 차지했다. 에반스 체벳은 3위를 기록했다.

레마는 그동안 보스톤마라톤에서는 별다른 기록을 세우지 못했다. 2017년, 2022년 마라톤에서는 중간에 기권했으며, 2019년에는 30위를 기록했다.

그의 트레이너인 제메두 데데포는 레마가 보스톤마라톤에 출전했을 때 늘 부상에 시달려왔다고 말하고 핫브레이크 힐처럼 긴 오르막은 그가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우승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스톤마라톤 여자부 헬렌 오비리 2연속 우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보스톤마라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헬렌 오비리가 올해도 강력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오비리는 경기 내내 리더그룹에 속해 달리는 노련한 경기운영을 보이며 2시간 22분 37초의 기록으로 두번째 보스톤마라톤 우승을 차지했다.

15일 128회 보스톤마라톤 경기에서 여자부 엘리트 선수들은 대부분이 리더그룹에 속해 달렸다. 첫 20마일 동안 미국의 에마 베이츠가 선두를 유지했다. 에마 베이츠는 지난해 10월 시카고 마라톤에서 족저근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으나 재활해 성공, 보스톤 마라톤에 도전했다.

리더 그룹은 17마일까지 베이츠를 앞세워 달렸으며 이후부터

는 로키디와 메어리 우기가 그룹 선두에 나섰다. 핫 브레이크힐에 들어서면서 14명이 그룹을 이뤄 달렸고 베이츠는 핫 브레이크 힐에서는 완전히 뒤로 처졌다. 22마일 지점에서 리더그룹은 12명으로 줄었고, 오비리와 2017년, 2021년 우승자인 에드나 키플라가 그리고 세론 로키디 3인이 선두를 형성하며 치고나가 새로운 리더그룹을 형성했다.

쿨리지 코너를 지나면서 키플라가 뒤쳐졌고, 케냐 출신의 오비리와 로키디가 치열하게 선두경쟁을 벌였다. 켄모어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오비리는 앞으로 치고 나갔으며 세계선수권을 7년이나 차지한 이 베테랑은 로키디를 8초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을 굳혔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보스톤글로벌, 케이프코드 렌트 올해는 좀더 쉬워질 듯

예약 가능 단기 렌트 시설, 2021년 비해 50% 증가 일찍 예약이 대세, 심지어 1년전부터 예약하기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몇해 동안 가격이 급등해서 여름 휴가 렌트가 거의 불가능했던 케이프코드 지역에서 올해에는 렌트가 좀더 쉬워질 것이라고 보스톤글로벌이 9일 보도했다.

케이프코드위원회는 올해 약 1만 8천여개의 단기 렌트가 시장에 나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가 늘었으며 2022년 3월에 비해 약 50%가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렌트의 증가는 팬데믹 기간동안 케이프코드 지역에 세컨홈 구매가 급증한 데 있다. 많은 세컨홈 소유주들이 케이프코드에서 지내지 않는 시간 동안 비용 충당을 위해 단기 렌트 시장에 주택을 내놓고 있다.

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안정화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케이프코드로 몰리면서 렌트 비용이 급등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비용이 다소 진정되기 시작했으며 올 여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프코드의 호텔과 베드앤브레이크

패스트와 같은 기존 숙박시설은 단기 렌트의 급증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과도한 숙박 요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케이프코드 숙박 시설의 숙박률은 약 71%로, 하루 평균 \$286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단기 렌트는 86%의 숙박률에 하루 평균 \$552였다.

케이프코드는 여전히 인기 여름 휴가 지역이다. 케이프코드와 주변 섬지역의 렌트를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위니드베케이션닷컴(WeNeedaVacation)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부킹이 3.4% 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과 비교했을 때 27% 증가한 것이다.

최근들어 렌트한 집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기호도 변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단열이 안된 집을 렌트하고 모든 청소를 스스로 했었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청소까지 모두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케이프코드 이용 시 렌트비용 외에도 5.7%의 물류세, 케이프코드 수자원보존세 2.7%, 방 렌트 수수료 6% 등 총 14%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한, 휴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의 비용,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자전거, 보트 렌탈 등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케이프코드 인근 지역의 섬들은 렌트 가격에 상관없이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마타스비니어드 섬에는 4,000개 이상의 단기 렌트가 있으며, 낸터킷에는 3,000여 개의 렌트가 가능하지만 주의 규제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프코드에서 각 섬을 연결하는 증기선공사(The Steamship Authority)의 예약을 보면 현재 여름 피크 시즌, 차를 가지고 섬을 방문하는 티켓은 이미 모두 팔린 상태다.

팬데믹 이후, 휴가계획을 아주 일찍부터 세워 실행에 옮기는 트렌드가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여름 휴가를 빠르면 가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케이프코드 지역에서 렌트 하우스를 관리하는 킨린 그로버 매니저는 이제 예약은 연중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일찍 예약하거나 과거 방문객들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임지훈 장학재단 20명 선발 10만달러 장학금 수여

올해 처음 포함된 보스톤 지역에서도 7명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부터 수상대상을 보스톤 지역으로 확대한 임지훈 장학재단이 4월 12일 20명의 장학생을 선발, 각 \$5,000에 달하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 카카오 CEO이자 현재 뉴욕대(NYU) 스티븐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임지훈 교수가 설립한 이 재단은 뉴욕, 워싱턴 일원의 학생들만 선발하던 것을 매사추세츠 및 로드아일랜드 두 곳을 포함한 보스톤 지역으로 확대해서 선발 인원도 20명으로 늘렸다.

올해 보스톤 지역에서는 7명의 학생들이 선발돼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보스톤지역 장학생은 Ala Cho(노스이스턴), Derrick Kang(브라운대), Lauren Kim(웰슬리대), Margaret Lee(하버드), SoEun Park(하버드), Sohyun Ahn(에머스트칼리지), Timothy Kim(윌리엄스)이다.

임지훈 장학재단은 선발된 20명의 학생을 4월 12일 맨하탄에 위치한 Manhatta 라는 레스토랑으로 초청, 수여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임지훈 교수의 멘토링 세션과 학생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임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 더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장학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임교수의 멘토링은 물론 장학생들끼리 서로의 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다.

임지훈 장학재단은 뉴욕, 워싱턴과 보스톤 일원의 지역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한인 2세 또는 영주권자인 학생을 장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선발시 폼사(FAFSA) 기록을 토대로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한다. 이 재단은 2025년 장학생 선발관련 상세 내용은 2024년 9월에 공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 또는 장학금 관련 소식은 임지훈 장학재단 (<https://www.jrimfoundation.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임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보스톤 다이내믹스, 새로운 아틀라스로봇 공개

연구용으로 만들었던 아틀라스, 이제 산업용으로 개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월담에 위치한 현대의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최근 급속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계에 신버전 아틀라스(Atlas)를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이 로봇의 상업적 판매 계획도 발표했다. 수년간 아틀라스는 다양한 움직임과 뒤로 뛰어넘는 기능을 유튜브에 선보이며 슈퍼볼 광고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그간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아틀라스는 연구용 플랫폼으로만 개발됐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17일 판매용 아틀라스 개발을 완성, 제조업 제작 과정에 투입될 것이라 밝혔다. 새로운 아틀라스는 유압식 이 아닌 전기식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며 인

간을 뛰어넘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능력과 불가능한 움직임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무릎을 뒤로 굽히거나 몸을 360도 회전할 수 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어질리티 로봇틱스의 디지, 피겨 AI, 중국의 유니트리 H1, 캐나다의 생츠퍼리 AI 피닉스 등, 격화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번 움직임은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전망이다.

어질리티 로봇틱스의 디지(Digit)은 상자를 콘베이어 벨트에서 잡아서 선반에 놓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서 오븐에 집어넣는 등의 다양한 동작을 선보였다. 피겨 AI는 눈으로 보는 것을 설명하고 먹을 것을 달

라고 하자 사과를 테이블에서 집어 주는 등 뛰어난 인공지능과 정밀한 손 움직임을 자랑하며 챗 GPT처럼 거의 흡족을데 없는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유니트리의 H1은 과거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가장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가장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다. 생츠퍼리 AI의 피닉스는 다섯개의 손가락을 아주 능숙하게 움직이며 인공지능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능을 보유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버트 플래이터 CEO는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할 때는 또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로봇을 선보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틀라스는 공장의 무겁고 다양한 모양의 물건을 옮길 수 있으며 창고의 박스를 옮기는 용도가 아니다” 라고 기존 로봇과의 차별점을 강조

했다. 새로운 아틀라스는 공장에서 다양한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하며, 특히 자동차 부품과 같이 다루기 어려운 무게의 물체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플래이터 CEO의 설명이다. 플래이터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그동안 상업용 버전의 아틀라스의 개발에 집중해 왔으며 이 로봇이 완성되기 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이번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상업용 아틀라스의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로봇이 완성되기 까지 공개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로봇 엔지니어링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자연스런 움직임을 보이는 전기식 아틀라스의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는 아틀라스를 내년부터 자사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며, 계획된 사용성이 입증되면 제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 아틀라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틀라스는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세 번째 상업용 로봇으로, 2019년에는 개 모형 로봇 스팟, 2022년에는 박스를 내리는 스트레처를 판매했다.

다이내믹스가 제조한 모든 로봇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움직이며 지난해부터는 스팟 로봇에 챗 GPT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적용해 움직이는 모습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플래이터는 아틀라스는 수십만 가지의 다른 작업환경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여러 수준의 일반작업을 완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hsb@bostonkorea.com



성 안토인 드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위험회피 확산에 환율 1,400원 터치...17개월 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연일 연고 점을 높이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17개월 만에 1,400원선까지 올라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한 영향이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선 이후 환율 상승 폭은 축소됐으나, 시장에서는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환율 상단을 1,45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터치...2022년 11월 이후 최고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전장보다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오전 11시 31분께 1,400.0원까지 올랐다. 장 중 1,400원대에 들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최근 환율이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미국 경제 성장세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21.4% 정도로 보고 있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특히 인하 횟수도 연내 세 번은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강달러 심리를 크게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확

산도 환율을 끌어올렸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에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동의 확전 우려가 커졌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증시에서 투매 양상이 나오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다"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중동 확전 우려까지 겹치면서 달러는 더 강해지고, 원화는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 고시 이후, 위안화 약세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외환당국이 오후 들어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1,39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1,390원대 초중반까지 레벨을 낮췄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흔들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운제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가장 큰 요인은 달러 강세"라며 "지난 한주 달러 강세보다 원화가 더 절하된 것은 중동 정세와 관련이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수지 흑자도 조금씩 좋아지고, 외환보유액이나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환율이 과거 위기수준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 위험회피 심리 확산에 환율 상승압력...상단 1,450원까지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정희 연구원은 "그다음 고점은 1,420원과 1,450원인데 일단 상단은 1,450원까지 열어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에서도 대응은 하겠지만, 지금은 펀더멘털보다도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역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 특정 레벨을 막아내거나 하는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강달러 압력 확대에 외국인 배당금 지급에 따른 달러 수요가 더해지면서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갈등 격화에 따른 위험회피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추가 오버슈팅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중동 갈등 전개 상황에 따라 확전으로까지 연결될 경우 상단으로 1,440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에서 "금리 상승, 연준 인하 기대 조정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원/달러 환율의 2분기 상단을 1,420원으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전고점은 1,450원 내외이지만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중앙은행의 환시 개입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환율 수준이 이미 과도하게 높은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정훈 연구위원은 "수출업체 매도 물량이 많지 않고,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경계가 약해졌다는 점은 환율 상방을 열어두는 요인"이라면서도 "현 수준이 오버슈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기세력이 좋은 가격에 국내 시장에 들어오려는 목적으로 환율을 과도하게 끌어올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훈 연구위원은 "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지표, 경제지표,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주요 통화 약세 움직임 등 나올 수 있는 정보가 다 나온 상황이라고 본다면 며칠 후 되돌림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ssun@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85) 재정교육(Financial Literacy)의 이해

미국에선 매년 4월은 재정에 관심을 두는 달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금융 지식에 힘을 쓰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주식투자, 채권과 이자율 관계, 복리계산과 적용, 신용카드 이자율, 주택융자금, 학자금 투자와 용자, 은퇴 투자, 보험 등 필요한 재정 상식은 무수히 많다.

미국에 이민을 온 일 세대는 아이들 교육에 모든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지만, 한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융 지식에는 관심이 없다. 부모 역시 재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들 자신도 재정교육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재정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일반 투자자는 대박 나는 종목을 선택하고자 한다. 투자하는 시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축을 우선 해야 한다. \$100에서 \$100을 더 저축하면 100% 수익률이다. 어떤 뛰어난 투자방법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

라 꾸준한 저축이 투자의 첫걸음이고 부를 축적하는 기본이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알아야 한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금융상품 파는 사람, 주식 브로커, 재정 설계사, 대부분이 숨어있는 경비를 말해 주지 않고 재정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금융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분명히 없다(No free lunch)' 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 한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 주식 투자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주위에 주식으로 망했다는 소식도 자주 접하지만, 부동산은 눈에 보이고 만져볼 수도 있기에 안전(?)한 투자로 생각한다. 1928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9.8%이고 부동산은 4.2%에 불과하다. 10년 주기(2010-2019)에도 주식시장 13.4% 그리고 부동산은 3.8%이다. 부동산이 급등했던 지난

4년(2020-2013)간의 수익률이 10.2%이다. 그러나 주식시장 역시 11.9%로 상승했다.

주택융자금도 빨리 갚는 것이 이자를 내지 않기에 재정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택융자금 이자율이 3% 혹은 4%라고 가정할 때 어느 곳에 투자하여 수익률이 약 7%를 받을 수 있다면 주택융자금을 빨리 갚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된 재정교육 혹은 재정 상식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떤 곳에 투자해서 손실을 경험한 사람,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 은퇴한 사람, 등 많은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원금을 보장(Guarantee)하며 수익이 난다는 투자이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는 위험성(Risk)을 동반한다. 투자가 무엇을 '보장' 한다고 말하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이런 투자상품에는 숨어있는 비용이 분명 존재하고 부과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또한, 경비가 많은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일 년에 개인연금 투자(IRA)로 \$7,000씩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면 별로 관심이 없다. 산수 계산으로 10년 동안 투자해도 \$70,000이 되기에 어느 세월에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가이다. 그러나 투자 복리(Compound Interest)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지난 5년(2024년 2월 말까지) 주식시장 수익률은 14.5%, 지난 10년은 12.6%, 그리고 지난 30년은 10.2%이다. 수익률 10.2%란 \$10만 불 투자가 \$180만 불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이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이민 생활에서 모든 재정 상식을 이해하고 생활에 반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축해서 투자하는지, 투자를 가능한 왜 일찍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기하지 않고 투자하는지 등 기본적인 재정 상식을 이해해야 한다. 재정교육은 자산 상속보다도 누구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2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하기 서술하는 내용은 10세 풍월주 미생랑 美生郎 조의 10편을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미생은 미실의 질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두의 처를 첩으로 들이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다. 당두 역시 부인을 바치고 조부에서 높은 관직을 얻어 출세를 하였고, 게다가 재물까지 행하게 되었으니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미생은 당두의 처와 함께 아들 셋을 낳았다. 그리고 당두에게 모두 아들로 입적하여 거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두는 자신의 아들로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결국 미생은 당두의 처로부터 얻은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미생은 조부 調府의 영숙으로 오랫동안 임직하였다. 영리한 당두의 보좌로 누만금의 재물을 모았다. 당두 또한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국가의 조세와 재정을 관리하는 총수(영숙) 미생과 부제(경卿) 당두는 진평왕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업무 처리를 잘했지만 자신들의 처부도 아주 잘했다. 또한 미생은 당두의 처남인, 즉 자신이 첩으로 삼은 당두 처의 오라버니, 만세 萬世도 조부로 불러 관직을 주고 당두를 보좌하도록 하였으니, 조부의 업무는 당두와 만세가 전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그러자 만세는 미생의 배려에 감복하여 나이 어린 처매妻妹(처제)를 그에

게 첩으로 바쳤고, 그녀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미생은 '유능한' 참모들의 업무처리에 흡족해 하면서, 당두는 자방子房이요 만세는 진평陳平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방과 진평 그리고 등통 鄧通은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모사 謀士들이다. 1세 풍월주 위화랑조에서 본바와 같이 범흥왕은 자신을 따른 마복 칠성 중의 한명인 위화랑을 일러 '나의 등통' 이라고 위화랑의 능력을 신임하며 칭찬했다. 등통은 한나라 문제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다.

자방은 장량 張良(?~기원전186)의 자이다. 소하 蕭何, 한신 韓信과 함께 한나라를 건국한 주역들이다. 즉 유방 劉邦이 천하를 통일하고 한 漢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유방으로부터 "군막에서 계책을 세우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방이다" 라는 극찬을 받은 중국사를 대표하는 대전략가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모사 謀士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량은 유방, 소하, 한신과 달리 한 韓나라의 명문가 출신이다. 조부 장개지는 소후, 선해왕, 양애왕 때 재상을 지냈으며, 아버지 장평도 회왕, 도해왕이 왕좌에 있을 때 재상을 지냈다. 그러나 기원전 230년, 한나라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했고, 장량은 조국을 잃었다. 그래서 진나라에 복수하기 위하여 기원전 218년경, 진시황제의 행차가 박랑사(현재의 허남성 양장)를 지나갈 때 창해역사를 시켜 시황제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름을 바꾼 후 하비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황석공으로 부터 태공병법을 배웠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고 어린 호해가 2세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자 환관 조고가 전권을 휘두르면서 진나라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진승과 오광이 이끄는 농민의 난 등 전국 각지에서 진나라 타도 붕기가 일어났다. 이때 항량은 조가 항우를 데리고 회계에서 군대를 일으켰고, 유방 역시 군사를 일으켜 하비의 서쪽에 주둔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장량이 유방을 찾아갔다. 유방의 얼굴에서 제왕의 기운을 느끼고 그를 돕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장량은 뛰어난 계책으로 한고조 유방을 완전한 대륙의 패자 霸者로 만들었다.

진평(?~기원전178)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때부터 지략이 뛰어난 모사였다. 진나라 말기에 '진승과 오광' 이 붕기하자 그는 위왕 구를 섬겼지만 중용되지 못하였고, 다시 항우를 따라 진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질 못했다. 다시 유방을 섬기자 유방은 그를 매우 신임하여 중책을 맡기고 수하에 데리고 있었다. 특출한 그의 계책으로 유방은 위급한 상황에서 몇번이나 목숨을 구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숙적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의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반역의 조짐은 사방에서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초왕 한신의 반역 사건이었다. 기원전 201년, 한신을 당장 제압하려고도 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에 유방은 진평과 함께 계책을 세워 한신을 체포할 수 있었다. 마침내 한신의 입에서는 '토사구팽' 이란 말이 나오

게 되었다(한신이 처음한 말은 아니라는 설도 있다).

"과연 내려오는 말이 맞도다. 민첩한 토기가 죽으면 사냥하던 개는 소용이 없어 살아죽이고(狡兔死 走狗烹), 높이 나는 새가 없으면 좋은 활은 감추어진다(高鳥盡 良弓藏). 적국을 치고 나면 모신 謀臣은 망하는구나. 천하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처음부터 삶겨질 운명이었어!"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신은 모반의 용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

오광과 함께 난을 일으킨 진승도 비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진나라의 무능한 2세 황제 호해와 환관 조고가 혼란스럽게 정치를 할 때 농민봉기를 주도하였다. 그는 소작농으로 전전하던 어린 시절부터 허풍을 잘 떨며 그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연작 燕雀(제비와 참새)이 어찌 홍국 鴻鵠(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느냐(燕雀安知鴻鵠之志哉)" 며 지금까지도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 로 변형되어 사용되는 명언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오광과 함께 봉기를 일으킬 때는 "세상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王侯將相寧有種乎)" 라며 스스로 장조長楚라는 나라를 세워 왕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사기(사마천),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3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조금씩 변화하라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면 모든 것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삶이란 게 그렇지 않던가. 부부나 가족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바라는 것이 더 많기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가 대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것이 더 길어지면 서로의 대화마저 뜨해지고 마음도 멀어지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친절히 대해주면 당연한 듯이 대하는 무성의한 언행에 상대는 또 화가 치밀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뭘 어찌란 말인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이 인생살이를 말이다.

부부의 관계도 생각해보자. 서로 너무 잘 알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편안한 관계이니 무얼 그리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냐고 말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이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요목조목 따지지 않고 살아 서로 대화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부들을 본다. 세상살이에 정답은 따로 없을 것이다. 각자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대로 살면 최고의 삶이

란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도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것이다. 서로 변화하지 않으면 지루함이 된다.

변해야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다. 살다 보면 어느 부부에게나 권태가 오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서로 각자 노력하며 살아야 실증 없이 부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나의 결혼 생활 32년을 생각해보면 서로 그 권태기를 잘 이겨냈던 것 같다. 부부가 서로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 좋은 이유도 되지만, 서로 다른 취미 생활을 해서 또 다른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내 경우가 그랬다. 남편은 골프를 좋아했지만, 나는 산을 좋아하고 조금은 몸이 힘든 경험하는 쪽을 좋아했기에 남편이 보기에 색다른 모습으로 남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남편은 내게 응원과 박수를 주었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 어느 장소에선가 만났을 때 눈에 띄는 예쁘다, 아름답다기보다는 무엇인가 끌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매력 있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끌리게 한다. 그 매력이라는 것

이 딱히 한 단어로 표현하지 어려운 것이지만, 나도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길 은근히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타고난 것도 있으려니와 나름 조금씩 자신을 갈고닦은 시간과 세월이 있으리란 생각이다. 화낸 얼굴보다 온화한 얼굴이 보기 좋은 것처럼, 일그러진 표정보다 환한 웃음이 좋지 않은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얘기 중에 다섯 씨를 떠올려 본다. 맘씨, 맵씨, 솜씨, 말씨, 글씨 등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조선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월이 제아무리 변하고 있어도, 자신을 표현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사람의 기본 도(道)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유교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의 도를 생각하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에서도 이 인의예지신이 삶의 밑바탕이라 생각한다.

친구 관계나 그 어떤 관계에서도 예의와 관계의 거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오래도록

유지가 된다. 좋은 친구로 오래 남기를 원한다면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씩의 노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지루하지 않을 만큼에서 너무 멀지 않을 만큼의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이 귀찮다면 안 해도 좋은 일이다. 그 친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 인가보다 생각하고 마음의 아쉬움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된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 어찌 그리 쉬이 버리고 쉬이 얻어지는 것이겠는가.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면 모든 것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정말 옳다는 생각을 한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관계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서로 바쁘게 사는 현대의 삶에서 부모를 챙겨주지 않는 것은 이미 삶을 통해 경험한 부모는 너른 마음으로 자식을 품어주어야 하는 작은 변화의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과 원만하고 평탄한 남은 여생을 누리는 지혜이다. 그저 손자, 손녀 챙겨주며 고맙다는 인사가 최고의 변화 노력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청여남송靑如南松



김회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오타니가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였다. 그를 보고자 하던 팬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대단한 환대를 받았다고 하던가. 그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는데 황금색 임금이상이었다. 황금색이라면 황제를 의미한다. 음행오행설에 따르면 황색은 중앙이라는 거다.

1900년대 초반일게다. 조선은 국호를 조선제국으로 바꿨다. 고종임금도 황금색으로 어의(御衣)를 바꿔 입었다. 그동안은 붉은 색 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바. 하긴 붉은 색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라 했던가. 대신 중화(中華)는 될 수 없었다고 했다

일터에서이다. 직장 동료가 카드를 전해줬다. 카드속엔 영어는 물론, 한글과 한문도 같이 했다. 출신별로 각자가 할말을 적었는데, 한문(漢文)문구가 인상적이었다. 북여동해 수비남산 福如東海 壽比南山. 젊은 중국인들은 전통한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데, 그 친구의 볼펜글씨는 그럴듯했다.

글귀를 본적이 있던가 아물거렸다. 인터넷을 뒤적여 글내용을 찾았다. 뒷사람에게 보내는 축원의 글귀라 했다. 북은 동해바다 물과 같이 흘러들어오고, 수명은 남산 푸른 소나무 같으리라. 북이 넘치며 소나무 처럼

장수하라는 덕담인게다. 한편 글귀는 한국 애국가 가사와 그럴듯 하게 겹친다. 동해물과... 마르고... 남산위에 저 소나무...

글귀는 고마웠다만 입맛은 달지 않았다. 오래살라며, 나이타령이라니. 찝~. 청여남송靑如南松으로 바뀌 읽기로 했다. 내 나름 해석을 붙인다. 푸르기가 남산위 소나무 처럼 될지니. 추사선생의 세한도의 발문이다.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더디 시들음을 알 수 있다.

(세한도 발문에서)

황금색 어의(衣) 입은 고종황제도 생일엔 북여동해와 수비남산이란 축하 말을 들었을까? 만수강녕萬壽康寧이란 인사는 받을 수도 있겠다.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시편 68:13)

덧붙임: 한류 (K-wave, 韓流)의 영향인가. 요사이엔 출신국적을 불문하고 한글을 제법들 잘 쓴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몰래 뛰는 ‘부정맥’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몰래 뛰는 부정맥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심장혈관·부정맥센터 강기운 순환기내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맥박으로 병원에 갔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유 없이 갑자기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불규칙한 ‘부정맥’은 증상이 발생한 상황에 심전도검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신경정신질환인 공황장애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맥 진단검사는 기본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24시간 홀터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한다.

중앙대학교병원 심장혈관·부정맥센터 강기운 순환기내과 교수는 증상 혹은 발작성 부정맥 발생 지속시간이 짧아 심전도를 찍는 것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혹은 그 이상 시간 동안에 리듬 및 맥박을 기록하는 ‘홀터심전도검사’, 침습적인 ‘이식형 루프기록계’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홀터심전도검사’는 심전도 기록계를 부착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의 전기적 상태를 기록하는 검사로 보통 24시간 관찰하는 검사를 시행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 더 긴 시간 기록하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침습적 ‘이식형 루프기록계’는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이 의심되거나 다른 비침습적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환자에게 삽입하는 기록기로서, 수년 동안 몸속에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심전도의 리듬과 맥박을 관찰해 부정맥이 나타날 때 자동으로 심전도 기록이 저장된다. 이러한 검사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전기생리학검사’를 통해 부정맥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전기생리학검사’는 대퇴 정맥 등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전기적 카테터를 심장 내로 위치시키고 심장 각 위치에서 확인되는 전기회로를 확인하고 전기적 자극을 발생시켜 부정맥을 진단하는 검사다.

강기운 교수는 “심장의 맥박이 비정상적 상태인 부정맥의 경우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자각하기가 힘들어 심전도검사나 24시간 또는 수일간 검사를 하는 홀터 심전도검사로는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체내에 이식해 검사하는 ‘이식형 루프기록계’를 심장 앞부분 피부 밑에 이식해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해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진단이 쉽지 않은 부정맥의 경우 ‘이식형 루프기록계’를 환자에게 이식해 부정맥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한 결과, 실신 후 ILR 이식을 받은 환자 중 약 60%에서 부정맥을 진단해 조기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돌연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2023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부정맥 발생 사전 감지에 기존의 24시간 ‘홀터 모니터링’보다 30일 동안 진행되는 ‘확장심전도모니터링’ 검사가 더 효과적이고 진단이 정확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장심전도모니터링’ 검사는 24시간 홀터 보다는 착용도 다소 간편할 뿐만 아니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주까지 착용도 가능하며, 착용하는 동안의 심장 리듬 및 맥박을 모니터링해 발작성 부정맥 발생의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유럽의 5개 병원에서 심방세동 또는 심장 돌연사의 발생위험을 계층화하기 위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30일 동안 확장 심전도 모니터링 시 모든 부정맥 진단율은 65%였으나, 24시간 홀터 모니터링 검사 동안에는 11%에 그쳤으며 심실빈맥 또한 진단율은 30일 동안 모니터링 시 62%였지만 첫 24시간 동안에는 8%에 그쳤다.

강기운 교수는 “부정맥 환자의 진단에 있어

서 지속적인 ‘확장 심전도 모니터링’과 ‘이식형 루프기록계’ 검사 및 전기생리학검사를 통해 발작성 부정맥의 발생을 진단하여 보다 더 정확한 치료를 통해 다른 형태의 부정맥 발생, 심장 돌연사 또는 심부전 발생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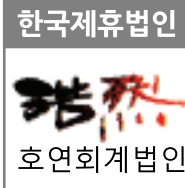
또 강 교수는 “평소에 갑자기 맥박이 너무 빨리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이나 호흡곤란, 현기증, 실신 등의 증상이 있으면 부정맥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몰래 뛰는 ‘부정맥’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 파티에 초대합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IL 27, 2024 (SAT) 6PM

FRANCO AMERICAN CLUB
W Prescott St. Westford, MA 01886

TICKET: \$80.00 PER PERSON

평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알래스카항공 1시간가량 전면 이륙 중단... "시스템 문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17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항공의 미국내 모든 항공편이 1시간가량 운항이 중단됐다.

알래스카항공은 이날 오전 미 연방항공청(FAA)에 미 전역의 자사 항공기에 대해 이륙 중단(ground stop)을 요청했고, FAA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10시 50분(서부 오전 7시 50분)에서 1시간가량 알래스카항공의 비

행기 이륙이 중단됐다.

이 항공사는 "우리는 항공기의 무게와 균형을 계산(weight and balance calculation)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해 FAA에 이륙 중단을 요청했다"며 "복구 후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항공기의 정확한 무게와 균형 계산은 안전한 비행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항공기 출발 전에 수립돼야 한다

알래스카항공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륙 중단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하루 종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에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문제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taejong75@yna.co.kr

WHO, 조류인플루엔자 인간감염 경고... "2년여간 감염자 52% 사망"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지 않은 인간 감염 사례를 유발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제레미 파라 WHO 수석과학자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H5N1이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는 더 커진다"며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 수석과학자는 이달 초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주민이 H5N1에 감염된 젖소에 노출된 후 병에 걸린 점을 거론했다. 감염자는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 수석과학자는 이 사례에 대해 "야생조류에 노출된 가축을 통해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첫 사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인간 감염이 많이 일어나면

바이러스의 적응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WHO는 2023년 초부터 이달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작년 11월에는 캄보디아 사망 사례가 WHO에 접수되기도 했다. 캄보디아 캄푹 마을에서 조류에 노출됐던 20대 여성이 H5N1에 감염된 채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치료도 중숨졌다.

WHO는 H5N1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라 수석과학자는 "인간대인간 전염이 이뤄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했을 때쯤이면 국제사회는 백신·치료제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백신과 치료제, 진단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한류를 넘어 역사를 마주하다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미주 추념식

Beyond Hallyu (Korean Wave)
Commemorating the 76th Anniversary of the Jeju April 3rd Incident and Exploring Its Collective Trauma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미주 추념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4월 27일 (토) 오후 5시**
장소: **보스턴 한인 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입장료: 무료 (누구나 참여 가능)

- 행사 일정
 - 추모식 (오후 5시 ~ 6시)
 - 리셉션 디너
- (RSVP 방법: 하단 QR코드 스캔, 또는 이메일 info@waldenkorea.org 전화 617-849-8433) (오후 6시)
-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동백꽃 미술 & 공예 체험
- 동백꽃 수목화 전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참여)

제주43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간 지속된 3만 여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주 4·3희생자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제76회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배우고, 희생자들을 기리며, 집단적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 기억, 치유의 중요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는 영어로 진행하나 한국어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후 리셉션 디너가 예정되어 있으며 RSVP를 기다립니다.

주최: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
주관: 월든 코리아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국제네트워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을 찾습니다.

제주4·3사건 고등학생 에세이 공모전 (마감 5월 30일)

Beyond Hallyu - Memory and Justice: Jeju 4.3 - Essay Contest

Are you interested in exploring modern Korean history? Join us for a one-hour, free event remembering the Jeju 4.3 Incident at the Korean Church in Brookline on Saturday, April 27th, at 5pm. Following this solemn remembrance, we encourage you to share your thoughts and insights by participating in our essay contest.

Deadline: **May 30th**
Rewards: All participants receive a special memento. The top 3 essays win additional prizes and scholarships.
Get details: Visit the information desk on event day (April 27).

Essay Guidelines - Your essay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areas:

Unique Reflection (Essential):
Join us at the Boston Korean Church in Brookline (32 Harvard Ave) on April 27th, at 5 p.m. This free event includes dinner and is family-friendly. It's more than a commemoration; it's a chance to blend collective memories with your insights on the Jeju April 3rd Incident. For details, visit www.waldenkorea.org.

Collective Trauma Impact: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llective trauma, using academic research to support your findings.

Future Implications:
Consider how the Jeju April 3rd Incident influences today's society, attitudes, and reconciliation efforts.

Formatting:
· Minimum 1,000 words in English · Double-spaced · 12-point Times New Roman font

For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info@waldenkorea.org
www.43jeju.com (한글) / www.WaldenKorea.org (English) / email: info@WaldenKorea.org / Tel: 617-849-8433

RSVP / Apply



2024 성령 부흥회

4.26/27/28

새로운 시 + 작



글로벌 감리교회

강사 | Rev. Dr. 조영진 명예 감독

4.26 (금) 저녁 7:00 인도하심 따라서 행 16:6-10

4.27 (토) 저녁 7:00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행 27:20-26

4.28 (일) 오후 2:00 남겨야 할 삶의 자취 막 14:3-9



동북부 GMC 연회
최형용 감리사



보스턴 새소망 GMC
이장규 담임목사



커네티컷 중앙 GMC
김정환 담임목사

장소 | 보스턴 새소망 GMC 예배당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